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문화방송 노보

무단협 1562일째
타임오프해지 494일째
지명파업 389일째

224호
발행인 김연국
편집인 허유신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2017년 4월 27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MBC·방문진 13명 증언

단기 4350년 정유 4월1일 계미 한겨레

MBC 전·현 임원, 회삿돈으로 관광·인사권자에 접대 의혹

● 안광한 전 사장
MBC플러스 사장이던 2013년 10월 모나코 출장중 나흘간 체코 등 외유 출장비만 2천만원…"한류 파악" 해명

● 윤길용 MBCnet 사장
울산MBC 사장이던 2014~2015년 인사권자인 사장·방문진 임원 등에 광고영업비로 골프 접대·명품 선물

● 감사중인 직원들 인사이동
감사국, 정기감사때 의혹 조사하자 담당 감사인들을 다른 부서에 발령 방문진엔 아직 감사결과 보고 미뤄

안광한 전 사장 · 윤길용 MBCnet 사장

안광한 전 〈문화방송〉 사장과 윤길용 〈지역엠비시슈퍼스테이션〉(엠비시넷) 사장이 각각 자회사와 지역사 사장으로 있을 때 회삿돈으로 관광

접대와 고가의 선물 등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화방송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되레 감사를 한 직원들을 부서 밖으로 내보냈다. 두 사람은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이다.

〈한겨레〉는 최근 문화방송·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관계자 13명을 상대로 대면·전화·서면 인터뷰를 하고, '스포텔'(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관련 콘텐츠·중계권 박람회) 누리집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이를 종합하면, 안광한 전 사장은 자회사 〈엠비시플러스〉 사장이던 2013년 10월13~19일 직원 2명과 함께 모나코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출

모나코'를 참관하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외유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안 전 사장은 6박7일 일정 가운데 모나코에는 행사 시작 전날(13일)을 포함해 단 이틀만 머물렀으며, 나머지 3박4일엔 우크라이나, 체코 등을 방문했다. 안 전 사장의 출장비는 행사 등록비 140만원, 항공비 등을 포함해 2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안 전 사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스포츠마켓 출장과 더불어 한류 확산을 위한 케이팝(K-POP) 공연과 프로그램 교류 가능성을 파악하고 현지 사정을 알아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경유 일정을 잡았다. 출발 전 사전약속을 잡아 우크라이나 대사, 영사와 미팅을 가졌다. 현지 젊은층들의 분위기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 대학을 비롯해 시내 몇 곳을 방문했으며

방문진 이사장(이상 당시 직함),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여권이 추천한 김광동·박천일·김원배 방문진 이사,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으로, 모두 윤 사장의 '인사권자'들이다. 문화방송 지역사·자회사 사장은 본사 사장이 방문진과 사전협의를 거쳐 선임하기 때문이다. 윤 사장은 광고영업 활동 등에 써야 할 예산 2천만원가량을 전용해 이들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고가 넥타이, 홍삼·소고기·돌미역 선물세트 등을 꾸준히 보냈다. 회삿돈으로 인사권자들에게 사실상 로비를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 덕분인지 공교롭게도 윤 사장은 2016년 3월 한차례 연임에 성공했고 올해 4월에는 엠비시넷 사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윤 사장은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사가 아직 진행 중이다. 나

다. 지난해 여름부터 겨울까지 이뤄진 정기감사 결과는 올해 1분기를 넘기고도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김상철 문화방송 감사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울산엠비시와 엠비시플러스 모두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감사국의 이례적인 인사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안 전 사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보도로 문화방송이 안팎에서 비판받을 때 회사 내부 게시판을 통해 "2002년 '효순·미선양 방송'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되어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이번 (세월호 관련)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국 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터져나온 비리의혹
안광한 · 윤길용 게이트

〈관련기사 2 · 3 · 4 · 5면〉

안광한, 출장 핑계 회사 공금으로 '호화 관광'

박람회 출장 간다며 키예프, 프라하 등 관광…정기감사에서 비위 드러나자 감사국 해체

안광한 MBC 전 사장이 MBC 플러스 사장 재직 시절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회사 공금 3천여만 원을 개인 관광에 전용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당시 본사 사장이던 안광한은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 담당자가 징계를 받았으며, 감사국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업무는 반나절, 당일 오후부터 관광지 유람

안광한은 2013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동행 직원 1명과 함께 6박 7일 중계권 박람회 '스포텔(SPORTEL) 모나코(모나코 공국 소재)' 출장을 떠났다. 실제로는 14일 오전 잠시 부스만 돈 것이 업무의 전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 2시 그는 모나코 왕궁에 입장했다. 사실상 업무는 딱 반나절만 보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에 나선 것이다.

이튿날인 10월 15일 그는 아침 10시 35분 에어프랑스 편으로 모나코에서 2,5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이동해 2박, 다시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1박 관광 일정을 보냈다. 공무상 출장지인 모나코를 이탈했을 뿐 아니라, 애초 출장 보고 항목에도 없는 여행지 관광에 회사 돈과 출장 기간을 전용한 것이다. 〈표1 참조〉

〈표1〉 안광한의 출장 동선

일시	동선
2013년 10월 13일	한국 출국→모나코 도착
10월 14일 14:00	모나코 왕궁 입장 (스포텔 박람회장은 오전에만?)
10월 15일 10:35	우크라이나 키예프 이동 (이후 2박)
10월 17일	체코 프라하 이동 (1박)
10월 19일	귀국

안광한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한겨레 측에 "당시 스포츠마켓 출장과 더불어 한류 확산을 위한 케이팝(K-POP) 공연과 프로그램 교류 가능성을 파악하고 현지 사정을 알아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경유 일정을 잡았다. 출발 전 사전약속을 잡아 우크라이나 대사, 영사와 미팅을 가졌다. 현지 젊은층들의 분위기 파악을 위해 우크라이나 대학을 비롯해 시내 몇 곳을 방문했으며, 체코는 귀국시 서울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경유했다"고 해명했다.

출장 핑계로 3천만 원 사용, 사기와 배임 해당

그러나 당시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안광한은 한국을 떠나기 전 이미 프라하 여행 가이드북을 구매한 뒤 항공과 숙박 스케줄까지 예약했고, 10월 8일과 10일에 회사 공금으로 이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국은 이 출장이 "이미 출발 전부터 목적이 여행이었고, 스포텔은 이를 위장하기 위한 빌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안광한이 출장 여비로 회사에서 가져다 쓴 돈은 3천만 원에 달한다. 그는 개인 관광 일정 중 회사 공금으로 여행 가이드북, 식사비, 택시비,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비, 심지어 수퍼마켓 쇼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일비로 지급되는 내역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돈을 또 타낸 것이다. 〈표2 참조〉

〈표2〉 안광한 현지 진행비 사용 내역
(여비 교통비 등 일비와 중복 지급)

사용 내역 (안광한 측이 보고한 내역)	사용 금액
프라하 여행 가이드 책	14,500원
모나코 택시비	99유로
	45유로
	95유로
모나코 왕궁 입장료	16유로
모나코 식음료	8유로
	10유로
우크라이나식음료	60uah (흐리브냐, 우크라이나 화폐단위)
	46.50uah
우크라이나수퍼마켓	314.08uah
	163.30uah
체코 택시비	637czk (코루나, 체코 화폐단위)
	698czk
	110czk
우크라이나가이드 비용	800USD (미국 달러)
총액	1,455,060(원)

형법 347조, 355조, 356조와 판례에 따르면, 안광한의 이같은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지인과의 식사에 쓰고, 출장 기간이 단축돼 반납해야 할 출장비를 챙긴 대학교수에게 배임죄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안광한이 새로운 유형의 비리 창출, 이은우도 의혹

안광한 이후 MBC 플러스에서는 2014년과 2015년 똑같은 유형의 비위가 재발했다. 윤재근, 이형관 이사가 역시 스포텔 출장을 핑계로 동행한 직원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자신들은 회사 공금으로 관광을 다닌 사실이 정기 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 두 사람도 안광한과 같은 수법으로 전용한 공금이 각각 1천 만 원을 넘는다. 당시 관계자들은 "2013년 안광한 사장이 출장가기 전에는 이러한 배임행위가 없었는데 그 이후 관례처럼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안광한이 전에 없던 새로운 비위 유형을 창출했다는 뜻이다.

이은우 현 경영본부장에 대해서도 증언들이 쏟아졌다. 익명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은우와 그 측근들이 MBC 플러스에서 케이블TV 사업자(SO) 영업비용으로 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책정했는데, 제대로 된 영수증 처리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은우 등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비용을 청구했는데 실제로는 여행사와 짜고 해외출장 자체를 가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증언했다.

안광한은 이 출장 5개월 뒤 본사 사장으로 영전했고, 2015년 3월 심복이던 이은우를 본사로 특별채용해 기획국장에 앉혔다. 채용 사유와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은우는 이후 김장겸 사장 취임 이후 본사 경영본부장 자리에 올랐다. 안광한은 3년의 임기를 채우고 지난 2월 퇴직하며 퇴직금 3억 원과 특별공로금 5천만 원을 챙겼고, 여기에 더해 자문료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MBC의 돈을 추가로 챙겨갈 예정이다.

이용마 기자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계좌

하나은행 850-910016-27704
예 금 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안광한·윤길용 게이트

MBC플러스, '수상한 거래' 의혹

"회사에 거액 손실 끼치는 수상한 외주 계약"

감사에서 드러난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MBC, MBC플러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광한의 최측근이었던 이은우 현 MBC경영본부장(전 MBC플러스 경영이사)과 한윤희 전 MBC플러스 사장의 재직 시절, 내부에서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비용 3배로 부풀린 수상한 외주 계약

MBC플러스는 기존에 인력 도급 계약으로 처리하던 스포츠 프로그램 편집 업무를 2015년부터 외주화했다. 이에 따라 E업체와 외주계약을 맺었는데 연간 4억2000만원, 3년간 총 12억6000만원이라는 대규모 계약이었다.

문제는 이 계약으로 인해 MBC플러스가 기존 비용의 최소 3배가 넘는 회사 돈을 지출했다는 사실이다. E업체는 이전에도(2011년부터 2014년까지) MBC플러스와 편집 인력 도급 계약을 맺었다. 당시 편집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011년 1억2,380만원(54명), 2012년 1억8,840만원(91명), 2013년 1억7,840만원(87명), 2014년 2억210만원(95명)에 불과했다. 외주비가 이 비용을 초과한다면 계약의 실익이 없는데도, 계약 형태를 바꾸면서 비용이 오히려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새로 체결한 계약에는 NLE 워크스테이션과 EDIUS, AFTER EFFECT 등 신규 편집 장비 구입비용 4200만원이 포함돼 있다. 외주 업체를 위한 신규 장비를 구입했다면 MBC플러스가 기존에 보유한 멀쩡한 편집장비들은 어떻게 했는지, 외주 계약 신규 장비만 사용한 건지, 아니면 둘 다 사용했는지 가 모두 불분명하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하반기 MBC플러스에 대한 본사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계약에서 비용을 따져보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 오직 외주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만 첨부된 채 결재한 것이다. 이런 대규모 계약을 하면서 업무량과 난이도, 필요 인력 숫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고, 가장 중요한 비용 산정 과정도 누락됐다. 외주 인력에 지급하는 비용의 기준이 되는 자체 제작비 지급 기준도 위반했다. 이는 사규 상 입찰구매기준 4조부터 10조까지 7개 조항 위반이다.

본사 감사국 "리베이트 의심, 수사 의뢰해야"

당시 본사 감사국은 "MBC플러스가 연 4억2000만원, 3년간 12억6000만 원이라는 액수로 편집 외주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과거 지급된 인건비의 3배가량 되는 금액을 지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국은 또 "MBC플러스가 적정한 가격을 1.75배 초과한 월 35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해 연간 1억8000만원, 3년간 5억 4000만원 부당 이익을 E업체에 안겼다" 면서, "회사의 누군가가 E업체로부터 킥백(리베이트)을 받았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당시 감사국은 "안광한의 최측근 이은우 이사(현 MBC경영본부장) 등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수상쩍은 정책 결정을 내린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제재해야 하며, 킥백(리베이트) 의혹은 감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회사에 이런 손해를 끼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3년 이상 유기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발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감사 역시 최종 단계에서 돌연 중단됐고, 감사국은 해체 수준의 대규모 인사 파동을 겪게 되었다. 당시 본사 사장은 안광한, 기획국장은 이은우였다.

> 이 계약에서 비용을 따져보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 오직 외주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만 첨부된 채 결재한 것이다. 이런 대규모 계약을 하면서 업무량과 난이도, 필요 인력 숫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고, 가장 중요한 비용 산정 과정도 누락됐다.

> 회사에 이런 손해를 끼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3년 이상 유기징역 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발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안광한 · 윤길용 게이트' 검찰 수사 받는다

'MBC 공동대책위' 오늘 전 · 현직 임원들 검찰 고발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안광한 전 MBC 사장과 윤길용 MBC NET 사장 등 전 · 현직 MBC 임원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고발 대상에는 안 전 사장과 윤 사장 외에도 김장겸 현 MBC 사장, 백종문 부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김광동 방문진 이사 등이 포함됐다.

해외출장비를 개인 관광비로 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광한 전 사장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이다. 울산MBC 사장 재직 시절 회사 공금으로 인사권자들에게 접대 공세를 펴부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윤길용 사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이며, 접대를 받은 김장겸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과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 이사 등은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된다.

‘안광한·고영주·김광동’ 접대비 횡령도 사실로 확인

윤길용 횡령 의혹 …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실세’ 김광동

백종문 부사장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 이사

윤길용 전 울산MBC 사장(현 MBC NET 사장)이 안광한 전 사장과 백종문 전 미래전략본부장(현 부사장),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 김광동 이사 등에게 고가의 접대와 선물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돈을 횡령한 의혹도 확인됐다.

공금으로 ‘골프 판돈’까지 제공

윤길용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울산MBC 사장 재직 시절 14차례에 걸쳐, 품의 절차도 없이 회사 공금으로 SK상품권, GS칼텍스 상품권 등을 구매해 골프 접대를 했다. 회사 공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여 골프게임비(내기 판돈)로 접대한 것이다.

골프 접대 대상자는 방문진 김광동 이사, MBC 백종문 부사장 등이었다. 윤길용은 또 32차례에 걸쳐 페라가모 넥타이 등 명품을 사들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김광동 이사, 김원배 이사, MBC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현 부사장 등에게 선물을 했다.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금고처럼 쓴 것이다.

윤길용의 선물 목록은 다양하다. 정관장, 황진단, 페라가모 넥타이, 언양 쇠고기, 정자 돌미역 등 다양한 품목이 망라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안광한 당시 사장에게 회갑 선물로 따로 30만 원 짜리 언양 쇠고기를 선물로 보내기도 했다. 〈표3, 표4 참조〉

윤길용의 접대 대상 중 상당수는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의 ‘접대 목록’에 7회 이상,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구 여권 추천 방문진 ‘실세’ 이사 김광동이다. 극우세력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인 김광동은 지난 2009년 이후 전례 없는 3연임에 성공해 8년 간 방문진 이사 자리에 앉아 있는 인물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지역사 사장 자리는 물론, MBC 내부 국장급에 이르기까지 MBC 인사의 80%를 김광동이 좌지우지했다”며 “그만큼 접대와 인사 민원도 김광동에게 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길용이 접대 예산의 목적과 회사 규정을 벗어나 김광동 · 고영주 · 안광한 등에게 쓴 회사 돈은 모두 2166만5000원. 엄연히 형법 356조와 357조 등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증재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윤길용 상습적 횡령 4천4백만 원, 전임자 소원영 7천만 원

윤길용은 이뿐만 아니라 재직 기간 상습적으로 회사 공용 법인카드의 사용한도(월 220만 원 + 현금 123만 원)를 초과해 쓰고 이에 대한 증빙을 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 임기 시작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단 한 달도, 한도를 지킨 적이 없었다. 총액은 4천4백7십만 원에 이른다. 윤길용의 전임자인 소원영 전 울산MBC 사장 역시 2010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매월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했으며, 총 횡령액수는 7천4백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 울산MBC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감사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국은 “한도를 초과해 회사자금을 쓰고 개인 사용분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횡령, 배임에 해당하므로 금액을 회수하고 임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윤길용은 적반하장으로 “감사가 갑질을 자행했다”고 반발했고, 이후 감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감사국은 해체 수준으로 대규모 인사파동을 겪었고,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다. ‘안광한 비리 감사’와 맞물려 누군가가 감사를 덮고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표3〉 윤길용이 품의없이 회삿돈으로 구매한 상품권으로 ‘골프 게임비(판돈)’ 등 접대

연도	상품권 종류	금액(원)	내역
2014	SK	40만원	경영자문위원장, 시청자위원장 등 골프(4.19~20)
		40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소장 골프(5.10)
		40만원	삼성전자 간부, SBS국장 등과 골프(6.6~6.7)
		60만원	**MBC경남 황용구 사장, 방문진 김광동 이사** 등과 골프(8.2)
		40만원	본사 A국장 등과 골프(8.30)
		40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소장 등과 골프(10.18)
2015	SK	40만원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등 골프(1.25)
	GS칼텍스	40만원	**본사 이사** 및 롯데자이언츠 대표 골프(3.21~3.22)
		20만원	**지역MBC사장, 방문진 김광동 이사** 등과 골프
		40만원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등 4명 골프(8.14~8.15)
2016	상품권	39만6천원	주요 협찬처 접대
		40만원	imbc 사장 등과 라운딩
		40만원	**본사 간부**, SBS임원과 라운딩
합계		**519만6천원**	

〈표4〉 윤길용이 회삿돈을 들여 사적용도로 인사권자(본사 임원, 방문진 이사진)들에게 선물한 내역

연도	종류	금액(원)	내역
2015	식품	33만원	**안광한 사장 등 임원 선물**(1.31)
	정관장	24만원	**안광한 사장**(8.20)
	황진단	21만6천원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9.16)
	넥타이	25만8천원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 등 2명(1.21)
		105만원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방문진 김광동 이사, 임무혁 사무처장, 국정원 박OO** 등
		20만원	**방문진 임무혁 사무처장**(3.9)
		103만5천원	**방문진 김광동 이사** 등
		214만원	**안광한 사장, 방문진 김광동 이사** 등
	언양 소고기	20만원	**방문진 김문환 당시 이사장**(3.23)
		40만원	**안광한 사장,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5.6)
		40만원	**방문진 김광동 이사** 등(5.28)
		85만원	**안광한 사장, 방문진 김원배 이사, 김광동 이사, 임무혁 사무처장**(7.1)
		40만원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김장겸 보도본부장**(7.8)
		20만원	**김재철 전 사장**(7.8)
		80만원	**김엽 예능본부장, 방문진 박천일 이사**(7.30)
		70만원	**안광한 사장,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 등
2016	정자 돌미역	39만원	연세대 류석춘 교수, **방문진 이사** 등
	넥타이	220만원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장, 방문진 임무혁 사무처장, 박맹우 국회의원** 등
	정자돌미역	91만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안광한 사장** 등
		70만원	본사 P부국장 등
	언양소고기	60만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안광한 사장,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장**
	한우선물세트	160만원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안광한 사장, 정수장학회 김삼천 이사장** 등
	언양소고기	30만원	**안광한 사장 회갑 선물**
	정자 돌미역	25만원	**안동MBC 안택호 사장** 등
합계		**1636만9천원**	

안광한·윤길용 게이트

‘윤길용 게이트’의 본질은 인사 청탁

핵심 실세 김광동, 차기 실세 김장겸 접대

2014~2016년 윤길용의 ‘접대 목록’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는 10여명이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김광동 · 김원배 이사, MBC 김장겸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당시 미래전략본부장) 등이다.

울산MBC 사장이 왜 방문진 이사들과 MBC 경영진에게, 회사 공금을 품의 절차도 없이 빼돌려 골프와 선물 접대를 했을까?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선물을 받은 인사들이 모두 윤길용의 ‘인사권자’ 들이기 때문이다.

MBC(본사)는 울산MBC의 대주주다. 본사 사장은 울산MBC 등 지역MBC와 자회사 사장을 선임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가하면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다. 방문진 이사들에게 MBC 본사 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지역사 사장 선임 역시 본사 사장이 방문진과 협의해 임명하고 있다. 즉 방문진 → MBC 사장 선임 → 지역 MBC 사장 선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볼 때, 방문진 이사들은 지역MBC 사장자리도 사실상 좌우할 권한을 갖고 있는것이다.

“김광동, 구속된 정호성과 수시로 통화”

김광동 이사는 그중에서도 핵심 실세 이사였다. 그는 사상 유례 없이,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도 벌써 8년 째 방문진 이사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3연임을 하고 있다. 김광동은 고려대 정외과에서 학부와 대학원(석 · 박사)을 졸업했는데,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실세인 정호성 전 비서관과 선후배 사이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사실상 본사 사장은 물론 상당수 지역사 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흔든 인물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MBC의 실세는 고영주도 김장겸도 아니라 김광동”이라며 “김광동 이사가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늘 긴밀하게 연락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와 지역사 포함해 MBC 지역사 인사의 80%를 김광동이 좌우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종문 부사장(당시 미래전략본부장)과 김장겸 사장(당시 보도본부장)도 접대 대상이었다. 이들은 지역사 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한은 없다. 당시 본사 임원들 가운데 왜 유독 두 사람이 포함됐을까? 윤길용이 미래 권력에 대해 보험투자를 한것으로 보인다.

백종문과 김장겸은 지난해부터 이미 차기 사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고, 특히 김장겸은 지난해 말부터 차기 사장 낙점설이 파다했다. 김장겸은 2012년 파업 당시 정치부장, 2013년 보도국장, 2015년 보도본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실세 중의 실세였다. MBC를 박근혜 방송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따라서 윤길용으로서는 이 두사람도 빼놓을 수 없는 로비 대상이었을 것이다. 윤길용의 접대 목록에서 김장겸의 이름은 일단 한차례만 등장하지만, 이것이 전부였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인사권자들에게 재물이나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는 배임증재에 해당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인사권자들이 그런 재물이나 이익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더구나 그 돈이 회사 공금이었다면 당연히 업무상 횡령, 배임이 성립한다. 실제로 윤길용은 2016년 6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임기 연장에 성공했고, 임기가 끝난 뒤인 올해 4월 MBC NET 사장으로 선임돼 또 살아남는 생존력을 과시했다.

수상쩍은 접대, 윤길용뿐이었을까?

윤길용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MBC에는 없었을까? 노동조합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역MBC 사장단 회의에서 “지역MBC 사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감사하는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냐”는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사 사장들은 당시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에게 ‘감사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투서까지 발송했다.

사실이라면 절차에 따라 위법 · 탈법경영 여부를 가려내는 감사 행위를 지역MBC 사장들이 저지하고 무산시키려 한 것이다. 해사 행위를 집단 모의한 정황만 봐도 또 다른 윤길용이 있었을 거라는 심증을 굳힐 수밖에 없다. 철저한 감사, 나아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감사 중단과 감사국 해체, 안광한 지시였나?

안광한 사장 관련 감사 진행하던 A부장 대기발령 이어 징계

지난해 12월 본사 감사국에 대한 대규모 인사발령이 갑자기 단행됐다. 감사국 부국장이 면보직되고, 감사1,2부장 등 보직자들도 각각 자산개발국과 경인지사로 전보됐다. 감사국 사원 3명은 콘텐츠사업국과 매체전략국 등으로 전출됐다. 김상철 감사가 국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한 직후 갑작스레 내려진 인사발령이었다. 사실상 감사국 해체였다.

감사 담당자에 대한 투서 직후 감사 전면 중단

당시 다른 부서로 전출된 감사국의 A 사원(부장급)은본사 편성국과 울산MBC, MBC플러스, MBC아트 등에 대한 2016년 정기감사를 진행중이었다. A부장은 감사 과정에서 윤길용 당시 울산MBC 사장의 횡령, 배임 의혹을 적발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울산MBC에 업추비 사용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해명자료가 아니라 감사인의 태도와 언행 등을 문제 삼은 투서였다. 투서가 접수된 곳은 엉뚱하게도 감사국이 아니라 미래전략본부였다. "A부장이 '안광한과 백종문이 회사를 망치고 있다' 는 말을 했다"는 음해성 의도가 다분한 투서였다. 이 파문으로 감사는 전면 중단됐고, 윤길용에 대한 최종 감사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감사를 담당했던 A부장은 전보발령에 이어 대기발령(3개월) 조치된 뒤, 이달초 출근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 비리 혐의가 짙은 피감사인측의 투서로 감사인이 징계까지 받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편성국 감사, 안광한 턱밑을 조였나?

이 때까지만 해도 감사국의 이례적 해체와 A부장의 대기발령, 징계 등은 윤길용 사장에 대한 감사 파문의 여파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윤길용 의혹 뿐 아니라 안광한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의 MBC플러스에 대한 감사내용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안광한이 출장을 빙자해 회사 공금으로 개인관광을 갔다는 의혹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A부장이 지난해 실시한 정기 감사 대상에는 본사 편성국도 포함돼 있었다. A부장은 당시 감사 과정에서 편성국에 대한 기초 조사를 끝내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안광한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편성국장, 이후 편성본부장도 지낸 인물이다. 정기 감사가 안광한의 턱밑까지 조여갔던 것이다. 그러나 편성국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A부장은 3개월의 대기발령 후 뒤늦게 징계를 받았다. A부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편성국에 대한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직 사장의 ‘역린’을 건드린 이른바 ‘괘씸죄’가 감사국 해체와 담당자 징계의 원인이었다는 정황이 짙다. 감사인이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징계를 받다니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이쯤 되면 지난해 말 ‘감사국 해체’ 파문의 진원지가 어느 곳이었을 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당시 사장은 안광한이었다. 회사는 지난해의 편성국 정기 감사가 왜 중단됐는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회사가 밝혀낼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면, 결국 남은 방법은 하나다. 수사이다.

대선보도 감시단 보고서

특정 후보를 겨냥하는 MBC 뉴스

공영방송의 중립성은 어디로 사라졌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던 4월 17일 MBC 〈뉴스데스크〉의 첫 리포트는 각 후보의 선거운동 모습을 담은 [22일간 열전 돌입…첫날부터 강행군](장성호)이었다. 이 리포트는 문재인 후보의 야간 영상 메시지 장면으로 시작한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데다,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피사체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MBC는 이를 굳이 첫 장면으로 선택해 보도했다.

MBC '선거방송 준칙'은 "선거 관련 현장보도가 공정, 균형을 유지하도록 충실한 화면 구성을 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연설화면은 동일한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삽입 화면과 현장음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선거방송 보도의 원칙으로는 "엄정 중립과 공평한 기회 제공"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MBC의 공정하지 못한 선택은 선거운동 기간 첫 주 내내 계속됐다.

'주적 논란' 보도… 같은 사안을 보는 MBC의 다른 해석

4월 19일 대선후보 첫 스탠딩 토론이 열렸다. 외교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입니까"라고 물었다. 이른바 '주적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MBC 정치부(부장 김기현)는 다음날인 4월 20일 이 내용을 〈뉴스데스크〉 두 번째 리포트를 통해 보도했다.

①["北은 주적" 쟁점화…대답 회피한 文](김세로)

리포트는 제목처럼 문 후보가 "대답을 피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당일 토론회에서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답했고, 리포트가 나가는 20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MBC의 리포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같은 날 SBS 〈뉴스8〉은 "문재인 후보의 대응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정면 대응에 나섰다"고 보도했고, KBS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국방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한 점을 SBS와 KBS는 지적한 반면 〈뉴스데스크〉는 다루지 않았다.

UN인권결의안 '올인'… 북풍(北風) 데스크인가

이 같은 편향성은 다음날부터 노골적인 북풍 공세로 이어졌다. 〈뉴스데스크〉는 4월 21일부터 나흘간 모두 12꼭지를 통해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주적 논란'을 보도했다.

4월 21일
② "회고록 증거 문건"… 진실 공방 재점화(김세진)
③ 사전 문의였나… 사후 통보였나(정동욱)
④ "제2의 북풍" 반발… 일제히 공세(김수근)
주적 논란 확산… 안보 이슈 급부상(김민찬)

4월 22일
인권결의안 · 주적… '안보 대선' 급속 재편(김민찬)
문재인 vs 송민순 진실 밝힐 열쇠는?(정동욱)

4월 23일
"꼭 투표" 86.4%.. "안보가 변수" 54.5%(조영익)
핵심 쟁점 '안보 · 대북관' 뜨거운 난타전(류병수)
⑤ 文측 회의록 공개…의혹은 그대로(육덕수)

4월 24일
대선 핵심 이슈… 사활 건 '안보 공방'(장성호)
형사고발 '강수'… 사표 내고 '배수진'(김세진)
北 인권결의안 뭐길래?…기권한배경 결정(이상민)

21일 〈뉴스데스크〉는 세 꼭지에 걸쳐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보도했다.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은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이날 공개한 문건은 11월 20일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에게 전달했다는 북의 입장 통보문이었다. 문재인 후보 측의 핵심 반론은 "우리가 통보한 것에 대한 북한의 반응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뉴스데스크〉는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에 충실하고, 문 후보 측 반론을 소개하는 데 인색했다. ② ["회고록 증거 문건"…진실 공방 재점화(김세진)에서는 문 후보 측 반론이 전혀 없다. ③번 리포트에서는 단 한 줄, 그것도 핵심 반론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④번 리포트에서는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된 것을 통보해 준 것"이라는 문재인 후보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쟁점을 차분히 정리하기보다 다른 후보 측 공세와 '말 바꾸기' 의혹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③번 [사전 문의였나…사후 통보였나](정동욱)에서는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통보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이라면 감사하다 또는 다행이다 라는 북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적 평가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이미 '기권' 결정이 이뤄졌는데, 이것을 굳이 북한에 통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된다"고 했는데, 정작 이 같은 지적과 반론의 주체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는다.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기사에 등장하는 발화자가 누군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 말이 누구의 것이냐에 따라 신뢰도는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진 발언인지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예를 들어 같은 발언을 상대 당에서 한 것과, 믿을만한 전문가가 한 것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어도 의미와 맥락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런 보도 방식은 주장과 폭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사실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폭로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MBC 선거방송준칙에 위배된다.

편향성은 23일 보도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4월 23일 ⑤ [文측 회의록 공개…의혹은 그대로](육덕수)에서는 다섯 문장으로 반박 자료를 소개한 뒤, 문 후보 측의 주장 싱크를 담았다. 그 뒤에 곧바로 다른 후보들의 비판을 한 문장과 3개의 싱크로 소개하고, 송민순 전 장관의 반박을 담은 긴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뉴스데스크〉는 충분한 반론을 싣기보다 이례적인 무리수를 둬가며 특정 후보를 공격했다. '엄정 중립'이라는 선거 보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수상한 여론 조사 … 왜 조사하고 보도는 안했을까?

정치부(부장 김기현)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한국경제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앞서 살펴봤듯이 '주적 논란' 등으로 안보 이슈가 집중 거론되던 시기였다. 게다가 4월 7~8일 조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질문이 추가됐다.

MBC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여론조사 질문과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타, 없음, 무응답 생략)

15. 그렇다면 현재의 안보 위기 상황에 가장 잘 대응할 것 같은 후보는 누구입니까?
문재인 33.7%, 홍준표 16.7%, 안철수 16.5%,
유승민 14.5%, 심상정 2.7%

16. 선생님께서는 북한과 관련된 안보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긍정 54.5% (매우 그렇다 20.5%, 어느 정도 그렇다 34.0%)
부정 40.6% (별로 그렇지않다 31.1%, 매우 그렇지 않다 9.5%)

설문조사결과 자료: http://vote2017.imbc.com/common/file/2017mbcpoll0423.pdf

언론사로서 이러한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질문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보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MBC 〈뉴스데스크〉는 조사를 하고도 보도는 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가 한 주 동안 안보 이슈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 두 문항은 기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16번 질문은 23일 ["꼭 투표" 86.4%…"안보가 변수" 54.5%](조영익) 리포트의 제목으로 활용되었지만 기사에 소개되지 않았다. 15번 질문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안보 문제'를 유독 강조해오던 큐시트에서 안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빠진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안보 위기 상황에 가장 잘 대응할 것 같은 후보'로 문재인(33.7%)을 언급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일까?

편집 동원해 맥락 왜곡

4월 18일 [부인 임용 · 아들 채용…의혹 총동원](현재근)리포트는 라디오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토론단장과 이언주 국민의당 선대위 뉴미디어본부장이 말한 내용을 교묘하게 연결 편집했다.

〈기사 내용〉
진성준 : **"보수 세력들, 또 수구 세력들에게 안철수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내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언주 : "내통이라는 말씀까지는 삼가를 해주시고요. 나라가 큰일이에요."

〈시선집중〉 인터뷰 원문
◎ 진성준 〉 이미 언론에도 보도 돼 있는 것처럼 조갑제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을 국가 반역자라고 했던 조갑제 보수논객이 안철수 후보를 내세워서 당선 시키면 우리로선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보수세력들, 또 수구세력들에게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모 게시판에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자, 박근혜 복권을 조건으로. 이런 얘기들이 실리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바른정당은 자기당의 후보를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를 사퇴시키고 그 대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그런 세력들과 실제로

◎ 진행자 〉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성준 〉 손을 잡고 **내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이언주 〉 내통이라는 말씀까지는 삼가주시고요.
(중략)
◎ 진행자 〉 세 분 잠시만요.
◎ 진성준 〉 당이 결정하면 지원유세 할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지금 사실은
◎ 이언주 〉 이렇게 해서 나라가 큰일이에요. 정말로.

같은 날 리포트였던 [유세차 사고에…사조직 개입 의혹](윤지윤) 에선 전날 이미 보도했던 문재인 후보 유세차량 교통사고를 또 다시 언급했다. 반면, 이날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안철수 후보의 '현충원 천안함 유족 추모 방해' 의혹은 〈뉴스데스크〉에서 다루지 않았다.

다음 날 [문재인 후보 '호남 홀대론' 실체는?](육덕수) 기사의 편집은 더욱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호남에서 반 문재인 정서가 뿌리 깊다는 반론이 있다'고 운을 띄우며 역대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인사를 분석한 논문을 제시했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아래 그림처럼 화면 합성이 이뤄졌다. 논문을 스케치한 화면 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덮어씌웠는데, 실제 기사 내용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적 인사 차별은 다른 정부에 비해 적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화면 조작은 전체 리포트 흐름과 맞물려, 수용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후보의 호남 홀대가 있었다'는 메시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이는 의도적인 뉴스 영상 왜곡이다.

〈뉴스데스크〉에선 축소된 '돼지 흥분제' 논란

4월 21일 [의혹과의 전쟁…해명하느라 '진땀'](윤지윤) 리포트는 문재인 후보의 '자연 미인' 발언과 홍준표 후보의 '돼지 흥분제', 안철수 후보의 '부인 채용 의혹'을 함께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최근 '설거지는 여자' 발언에 이어, 과거 자서전에 쓴 '돼지흥분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생 시절 하숙집 친구의 부탁으로 '흥분제'를 구해줬다는 내용입니다. 홍 후보는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들은 얘기'를 자서전에 썼던 것이라며 2005년 자서전 발행 당시에도 해명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책에 나와 있는 포맷을 보면 내가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일에 대한 반성이 포맷입니다."

이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팩트를 누락했다는 점이다.

같은 날 한 꼭지로 보도한 KBS는 앵커가 "대학시절 성범죄 모의에 가담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기자 리포트에선 "자신과 하숙집 친구들이 그 룸메이트에게 특별한 약물을 구해줬고, 룸메이트가 여학생에게 약물을 몰래 먹이고 여관까지 데려갔으나 여학생이 깨어나는 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적었다"며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SBS 역시 기자가 홍 후보의 책을 들고 출연해 "하숙집 동료들이 같이 하숙하던 친구에게 돼지 흥분제를 구해줬다. 그 친구가 좋아하던 여학생 술잔에 흥분제를 몰래 탔는데 그 여학생이 중간에 깨어났다. 당시에는 장난이었지만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알았다고 돼 있다"며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앵커는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범죄인데"라고 답한다.

하지만 〈뉴스데스크〉 보도에서는 홍 후보가 구해준 '흥분제'가 어떤 일에 사용되었는지 아무 설명이 없다. 〈뉴스데스크〉는 후보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계속 되는 전파 사유화… '극우 방송' 이길 작정했는가

MBC 방송강령은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뉴스데스크〉는 '극우 편향성'이 심해지면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얼마 전 언론노조가 발표한 '언론부역자 명단'에 다수의 MBC 인사들이 포함되자, 지난 4월 24일 보도국(국장 문호철)은 사회1부 (부장 김소영)와 문화레저부(부장 김태래)를 동원해 2개의 리포트로 경영진 · 간부 보호와 언론노조 공격에 나섰다. 언론노조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없고, 언론노조를 폄훼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진 '성명서식 보도'였다.

'언론 부역자'..명단 작성자 고소(박철현)
정파적 집단의 '언론인 손보기' 협박(백연상)

*언론노조 발표 '언론 부역자 명단' 참고 기사
(아래 QR코드 참조)

[정파적 집단의 '언론인 손보기' 협박](백연상) 리포트에는 두 명의 인터뷰이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극우 인사인 조갑제 씨가 '원로 언론인'으로 소개돼 인터뷰를 했다. 기사에 등장하는 양동안 씨 역시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중세의 마녀사냥과 다름없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부역자 명단 QR코드

극우 세력이 〈뉴스데스크〉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4월 21일 문화레저부(부장 김태래)에서 제작한 ['동성애'는 흥행 공식?… "미화될까 우려"] (백연상)는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이라는 특정 단체의 입장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24일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극우 학부모 단체 '전국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연합' 소속이다.

유력 보수 후보의 성범죄 가담 의혹은 축소 보도하고, 극우 인사들의 목소리는 확대해 보도하는 〈뉴스데스크〉는 이미 공영방송다운 공정성을 잃은 지 오래다. 대선 국면을 거치며 더 나아가 노골적인 '극우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전지부·계약직분회 역사적 통합 출범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와 계약직분회가 역사적인 통합을 이뤄냈다. 대전지부는 지난 18일 계약직분회와의 통합 출범식(사진)을 개최했다. 1987년 방송민주화 투쟁의 산물로 출범해 30년 역사를 가진 대전지부는 지난 2001년 언론노조 계약직분회가 출범한 뒤 17년간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해왔다.

12기 집행부 출범 2개월 만에 '일사천리' 통합

이한신 대전지부장은 지난 2월28일 열린 12기 대전지부 출범식에서 계약직분회와의 통합 추진을 약속했다. 이진숙 사장 체제에서 어려운 2년을 보낸 만큼 새로운 추진 동력이 필요했다. 대전지부 조합원 수(35명)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계약직분회와의 통합이 난국을 타개할 대책으로 판단했다. 12기 집행부는 부문별 간담회와 고참급 선배조합원 간담회를 비롯, 대의원 회의와 총회를 거쳐 계약직분회 조합원의 대전지부 가입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합은 일사천리로 성사됐지만 대전MBC 노조 30년에 걸친 통합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다. 2010년(8기)과 2013년(10기) 두 차례 통합 추진 실패 여파로 계약직분회조차 통합 추진에 반신반의했다. 오랜 기간 풀릴 것 같지 않던 통합의 실타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진숙 사장의 강력한 반(反)노조 정서에서 풀려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출근, 점심 피케팅 시위와 촛불집회 참석 등 대내외 활동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명분을 얻어 2개월 만에 통합에 성공했다.

계약직분회 17년 활동 마치고 역사 속으로

1997년 계약직 협의회로 출발한 계약직분회는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길홍동 계약직분회장은 퇴임사에서 파란만장했던 17년 세월을 회상하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2008년 계약직분회장과 사무국장 해고로 분회가 해산될 위기를 겪었지만, 2009년 복직 소송 승소로 복귀해 분회를 어렵게 재건했다. 또 김종국 전 사장의 계약직 탄압으로 시작된 정규직 지위와 동일 임금 및 호봉 등에 대한 소송도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뒀다.

또 계약직분회 기존 조합원 11명 이외 신입 조합원 2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입사 20년차의 홍덕순, 백정순 조합원이다. 이들은 진작 조합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회사의 압박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해 왔다. 그러나 이번 통합 출범을 계기로 가입을 결행해 의미를 더했다. 용기를 내준 두 분 조합원께 박수를 보낸다.

통합 출범식은 길홍동 계약직분회장과 최성훈 사무국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신입 조합원 소개, 통합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뒤풀이 자리는 늦깎이 신입 조합원들의 회한을 담은 가슴 뭉클한 건배사로 감동과 화합의 한마당이 연출됐다.

대전지부는 조합원 수는 이제 47명. 이번 통합으로 과반 노조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조만간 50명을 넘길 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대전지부는 통합의 강력한 힘을 토대로 대전MBC 정상화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송재우 퇴진하라" 춘천지부 지명파업 돌입

임금 교섭 중 최헌영 지부장에 정직 3개월 '보복성 표적 중징계'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춘천MBC 송재우 사장 퇴진과 부역자 청산 투쟁을 위한 지명파업에 돌입했다. 춘천지부는 지난 18~20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89%의 찬성률로 파업을 의결해 26일과 28일 이틀간 부문별 지명 파업에 나섰다. 춘천지부는 지난달 지방노동위원회의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였다.

그러나 쟁의 행위를 유보한 채 임금 교섭을 요구하던 춘천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계기는 최헌영 지부장에 대한 전격적인 중징계 결정이었다. 사측은 지난 14일 임금 교섭 중이던 최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측은 '방송 제작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지만, 최 지부장의 소속 국장조차 인사위원회에서 '제작을 태만히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춘천지부는 인사위의 무리한 결정을 노조 탄압을 위한 '보복성 표적 징계'로 규정하고 송재우 사장 퇴진과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한편 송재우 사장은 어제(26일) 사옥을 나서던 도중 피케팅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 조합은 노보 지면의 품위를 고려해 송 사장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QR코드 첨부로 대체한다.